전 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전체 조선인민에게 한 방송연설
1950년 7월 8일

친애하는 동포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영용한 우리 인민군 군관, 하사관, 병사들!

남반부에서 활동하는 빨찌산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무력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미국비행대들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야만적으로 폭격하며 평화로운 인민들을 살륙하고있습니다. 미국의 해군함대들은 우리 령해에 비법적으로 침입하여 해안의 도시들과 촌락들에 함포사격을 가하고있으며 륙군부대들은 자기들의 피묻은 발톱으로 우리 강토를 더럽히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조국의 남쪽 지역에 전선을 벌리고 인민군대의 남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갖은 야수적횡포를 다하고있습니다.

왜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강토에 자기의 군대를 들여보내고있습니까? 무엇때문에 이 략탈적흡혈귀들은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를 침범하고있습니까?

조선인민은 일찌기 북미합중국의 령토를 촌토도 침범한 일이 없으며 그 자주권을 추호도 침해한 일이 없습니다.우리 인민은 미국인민에 대하여 어떤 적대적행동도 취한 일이 없으며 북미합중국의 평화적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한번도 침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령토에 자기의 군대를 들여보내며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군사적간섭을 감행하며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살륙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강토를 피로 물들이고있습니까?

이것은 세계제패를 야망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을 자기들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리승만을 집권자로 들여앉히고 남조선괴뢰정부를 조작하여내였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테로,학살,위협, 기만 등 온갖 방법으로 조선인민이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

적통일을 극력 방해하였으며 자기의 주구 리승만역도를 사촉하여 우리 나라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일으켜놓고는 인차 공개적인 무력침공에로 넘어간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독립에 대한 조선인민의 응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인민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민에게는 《월가》전쟁상인들의 딸라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식민지노예의 운명밖에는 없다고 미국강도놈들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은 우리의 평화로운 도시와 농촌을 자기들의 군사연습장으로 만들고있으며 우리의 소년, 소녀들과 부인들과 로인들을 비행기 사격과 폭격의 과녁으로 삼고있습니다. 38선이북에서는 평양, 남포, 해주, 원산, 함흥 등 여러 도시들과 그 주변농촌들이 이미 루차에 걸친 야만적폭격을 받았으며 38선이남에서는 해방된 서울, 춘천, 개성, 의정부,주문진, 강릉 기타 도시들과 여러 농촌들이 미군비행대의 포악한 폭격을 계속 받고있습니다. 미제강도들은 논에서 모내기에 열중하고있는 농촌부녀자들에게 공중으로부터 기총사격을 가하고있으며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의 머리우에 폭탄을 퍼붓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에 대한 자기들의 무력침범을 소위 조선문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결정》으로써 은페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보장리사회의《결정》이란 조선대표의 참가없이 또한 쏘련이나 중국 대표의 참가도 없이 유엔헌장을 위반하여 《채택》된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허위선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하고있는 그들의 정체는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눈앞에 날날이 드러나고있습니다. 미국군대가 조선에서 유엔의 명의로 경찰의 기능을 수행할따름이라고 떠들어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성명은 아무도 속이지 못할것입니다.

유엔기구는 미제가 유엔의 기발을 들고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을 폭격하며 자유와 독립을 원하는 우리 인민을 학살하라고 창설된것이 아닙니다.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머

리우에 폭탄을 퍼부으면서도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떠벌이지만 그들의 망언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와 기만은 이미 히틀러파시스트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써오던 파렴치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는바와 같이 히틀러는 말하기를 《나는 평화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전쟁에 대하여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원동에서의 자기의 침략행동을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허위적성명으로써 엄페하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본천황의 《칙령》에는 《동방에서 항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다고 하면서 마치 조선이 동방에서 평화를 위협하는듯이 떠벌였던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독립을 박탈하고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히틀러파시스트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하던것처럼 우리 조국의 내정에 대한 무장간섭과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야만적폭격을 뻔뻔스럽게도 평화를 위한다는 거짓성명으로써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의 모든 규범과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조선에서 미국침략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야수적만행은 어떠한 허위와 기만으로도 은폐할수 없으며 정당화할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큰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침범하려고 발악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자기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한결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지와 애국적기개를 꺾지 못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조선인민은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할것이며 조국의 자유와 영예를 끝까지 고수할것입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아직 청소하고 전투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감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며칠 안되는 기간에 벌써 많은 전투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해방한 인민군부대들은 미군비행대의 야만적

폭격을 무릅쓰고 한강을 건너 한강남안의 적진지를 돌파하였으며 패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지대인 영등포, 부평, 인천 등 도시들과 그 주변일대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민군용사들은 적들이 제 2 근거지로 자칭하던 수원을 해방하고 계속 남으로 진공하고있습니다.

춘천과 홍천 방면에서 전투하던 인민군부대들은 원주, 횡성, 려주, 제천 등 여러 도시들과 그 주변농촌들을 해방하고 계속 남진하여 충주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한 항공부대는 적군의 전투질서를 혼란시키며 미군비행기들을 용감하게 공격하고있습니다.조선의 용감한 매들은 가렬한 공중전투들에서 적들의 소위《공중요새》라고 하는《비 29》를 비롯하여 수십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을 격추, 격파하고 우리 지상부대들의 전진을 성과있게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자랑인 땅크병들은 적에게 결정적공격을 가하여 적의 방어진을 돌파하고 그들에게 숨돌릴 사이를 주지 않음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무질서하게 도망을 치게 하고있습니다. 이 땅크부대들은 적들을 추격하면서 선참으로 우리 조국의 수도 서울에 돌입하였으며 지금은《서울땅크사단》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의 보병들과 포병들은 행군에서는 강인성을 보여주고 공격에서는 결단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적의 병력과 전투기재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청소한 해군부대들도 자기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서 영용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함대의 력사에는 힘에 넘치는 적들을 용감히 공격하여 미군순양함을 격침시킨 어뢰정부대의 위훈이 빛나게 기록될것입니다.

인민군부대들은 미국무력침범자들의 지상부대와 접촉하여 미군에게 심각한 첫 참패를 주었습니다.

전선에서 우리가 쟁취한 전과들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우리 인민의 힘은 무진장하며 영웅적인민군대는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능히 몰아낼수 있으며

또 반드시 몰아내고야말리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을 완전히 격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현대적군사기술로 장비되여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미국고용병들이 싸우는것처럼 딸라를 위하여서나 다른 민족을 예속시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 고상한 애국주의사상은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용감성과 영용성의 무진장한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미국침략자들의 군대는 남의 나라의 강토에서 싸우지만 우리의 인민군대는 전체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의 조국강토에서 싸우고있습니다. 미제강도들은 전체 우리 인민의 증오를 받고있으며 그들이 감행하고있는 만행으로 말미암아 걸음마다 인민들의 복수에 부닥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은 미제의 식민지략탈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에 대한 조선인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극도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청년들은 전선을 지원하여 홍수처럼 인민군대의 대렬에 들어서고있으며 그 수는 50만을 넘고있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서는 무장침범자들이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 나타나든지 그들을 제때에 격파하고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지키기 위하여 궐기한 애국적인민들로 자원병부대들과 련합부대들이 편성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의 영웅적진격에 호응하여나선 용감무쌍한 빨찌산들은 경북, 경남, 전남 등지에서 자기들의 활동구역을 확대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미국무력침범자들과 리승만역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지역들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리승만역도의 경찰테로통치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여준 영용한 인민군대장병들을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해방된 인민들은 반동에 의하여 해산되였던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며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

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따라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이던 토지개혁의 실시에 착수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괴뢰정부와 조선인지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이던 모든 토지는 몰수되여 무상으로 농민들의 소유로 넘어가고있습니다.

리승만괴뢰군대와 반동적국가기구의 붕괴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총검의 지지밑에 남조선인민들에게 강요된 리승만괴뢰통치제도의 내부적부패상을 여실히 폭로하였으며 이 제도가 조선인민의 아무러한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민군대의 승리와 인민군장병들에 대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원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및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인민들의 확고한 단결을 증명하여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적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전체 조선인민이 열렬히 지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둔 승리는 공화국 북반부인민들이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사수하기 위하여 한사람처럼 일떠선 결과이며 또한 남반부인민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며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의 담보로 되는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도 실시할것을 열망하고있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의 충실한 주구로서 미국의 정책을 실시하여오던 리승만도당이 패망하자 미국강도들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범을 더욱 로골화하고있습니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무력간섭이 없었더라면 그 주구들이 일으킨 동족상쟁의 내란은 끝나고 우리 조국은 벌써 통일되였을것이며 남반부인민들은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경찰테로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을것입니다.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범은 전세계인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쏘련, 중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랄리아, 이딸리아, 파키스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심지어 미국자체내에서도《조선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밑에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인민적운동이 전개되고있습니다.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전세계자유애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친애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조선인민의 악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을 무력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우리 강토에 피묻은 발톱을 내밀었습니다. 전체 인민은 일치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대답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진장하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지향이 얼마나 강한가를 반드시 알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결코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될수 없습니다.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감행하고있는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을 야만적으로 폭격하고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과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을 학살하는것을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뿐만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조국의 강토를 인민들의 피로 물들게 한 야수적미제침략자들을 천추만대를 두고 영원히 저주할것입니다.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를 물론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국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애국투사들의 이름은 조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전체 애국자들!

친애하는 형제자매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조선인민자신의 일입니다. 전체 인민은 미제무력침범자들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용감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적들을 격멸소탕하면서 계속 남으로 진공하고있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힘과 자원을 전쟁의 승리와 인민군대의 원호에 동원하며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도당을 급속히 격멸하기 위하여 식량과 직물, 석탄과 강철 등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소비를 극력 절약합시다.

전시증산을 위하여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하고 로력적위훈을 세우며 폭격의 피해를 받은 산업기업소들을 급속히 복구하며 경각성을 고도로 높여 우리의 후방을 철옹성같이 강화합시다.

영웅적남녀빨찌산들!

아직 해방되지 않은 지역의 인민들!

미제략탈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빨찌산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합시다. 빨찌산들은 더욱 대담하고 용감하게, 더욱 무자비하게 원쑤들을 공격합시다. 도로와 철도와 교량, 통신망들을 파괴합시다. 침략자들의 병력이동과 무기와 군수물자의 수송을 파탄시키며 적의 무기고들과 군수창고들을 습격파괴하며 적의 유생력량을 보는족족 소탕하여버립시다. 우리의 신성한 조국강토를 침범하고있는 악독한 원쑤들의 발밑에서 불이 일어나게 합시다.

적후방에서의 당신들의 영웅적투쟁은 인민군대의 진공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것이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날을 더욱 가깝게 할것입니다.

영용한 인민군 병사, 하사관, 군관들!

전체 조선인민은 커다란 사랑과 긍지감을 가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하고있는 당신들의 위훈을 살피고 있습니다.

악독한 침략자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결정적으로 격멸합시다. 우리 강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깨끗이 없애버립시다.

인민군군관들!

현대전투의 령도예술을 솜씨있게 적용합시다. 부대들의 기동작전을 대담하게 실현하여 적들을 포위섬멸합시다. 우리 군대의 우수한 기술들을 완전히 리용합시다.

인민군대의 보병들! 땅크병들! 포병들! 비행사들! 해병들!

당신들은 이미 리승만괴뢰군대를 격멸하는 전투에서 영용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제국주의침략군대를 더욱 용감하게, 철저하게 격멸합시다. 자기의 무기를 능숙하게 리용하여 적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읍시다.

당신들은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 앞에서 신성한 임무를 실행한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침략자들로부터 우리 조국을 용감하게 사수한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 장군들과 같은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아 조국해방을 위한 이 신성한 싸움에서 모두다 영웅적위훈을 떨칩시다.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우리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있고 우리의 귀여운 후대들이 자라고있는 조국강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예로운 기발이 부산, 목포, 제주도 한나산에까지 높이 휘날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의의 해방투쟁을 승리로써 완수합시다.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의 자유독립 만세!